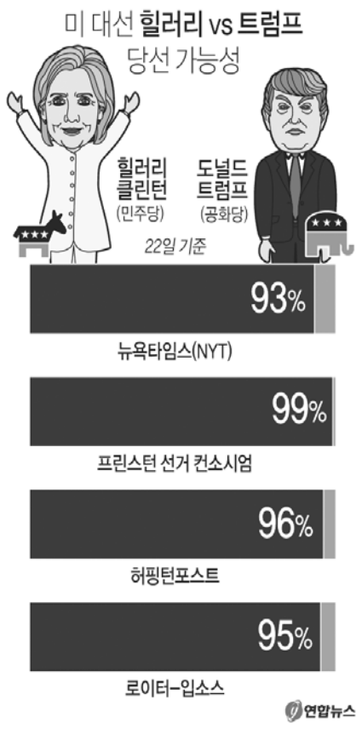
힐러리 지지율 50% 돌파 … 트럼프 38% 바닥



ABC방송·WP 여론조사

격전지 조기 투표율도 앞서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최고로 치솟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바닥을 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대선을 불과 16일 앞두고 클린턴이 완전히 승기를 굳힌 모양새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22일 유권자 87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은 50%에 달해 38%에 그친 트럼프를 12%포인트 앞섰다.

자유당 게리 존슨 후보는 5%, 녹색당 질 슈타인 후보는 2%를 각각 차지했다. ABC방송과 WP의 지금까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최고의 지지율을, 트럼프는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결과다.

특히 59%는 트럼프의 '선거조작' 주장을 거부했으며 65%는 그의 '대선 불복' 시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69%는 트럼프가 성폭행 주장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편 클린턴 캠프의 로비 무크 선대본부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이번 선거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많은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격전지에서 유권자 40% 이상이 11월8일 대선일 전에 투표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주요 격전지 조기투표에서 클린턴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다만 무크 선대본부장은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격전지는 격전지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며 "그곳들은 박빙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격전지가 1~2%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난다"고 말했다.

AP통신, 트럼프 "끔찍한 여자" 발언에 女 유권자 표심 더 싸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끔찍한 여자"(nasty woman) 발언 이후 트럼프를 향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이 더욱 싸늘하게 변했다.

대선후보 간 토론장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날린 말이 트럼프에게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여성 표를 더욱 깎아 먹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발언 이후 여성 표심의 변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트럼프가 막말 이후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욱 멀어졌다고 전했다. 에밀리 디비토(23·여)는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지지했지만 지난 19일 펼쳐진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을 계기로 클린턴과의 연대감이 더욱 생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몸값 뛰는 두테르테

中이어 日·러서도 '구애'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몸값이 뛰고 있다.

전통 우방인 미국과는 등을 지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일본, 러시아로부터 경쟁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동중국해 영유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일본과 경제 원조를 노리는 필리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지도자들과 경제협력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개발 지원에 50억 엔(약 550억 원)의 차관 제공을 비롯해 경제 개발 지원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의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존중하지만, 중국에 맞서 일본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그동안 희망한 대로 러시아도 연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모술 떠나는 이라크 난민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최후거점인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현지시간) 모술을 빠져나온 이라크 난민들이 시리아 접경지역인 라잠 알-살리바 사막지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 첫 '평화의 소녀상' 설치 … 日 관방장관 "매우 유감"

상하이 사범대 교정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중국에 첫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이런 움직임이 중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로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지 않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과제에 미래 지향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중국 상하이사범대 원위안(文苑)루 앞 교정에 한중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했다.

스가 장관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시민단체 등의 소녀상 설치 활동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말에는 "합의에 근거해 각국이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3 동진의 대장군 왕돈

사마예 왕씨 제거 반발 쿠데타 일으켜

왕돈(王敦, 256-324)은 낭야 왕씨 출신으로 자는 처중이다. 진무제 사마염의 사위로 양주자사를 지냈다. 낭사왕 사마예가 강남에 동진 정부를 세우는데 사촌인 왕도와 함께 참여했다. 후일 원제 사마예의 왕씨 제거 움직임에 반발해 쿠데타를 일으켜 동진 조정을 좌지우지 했으나 병사(病死)했다.

그는 명문 출신이고 황제의 사위로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이 괄괄했다. 무제 사마염은 서진의 명사들을 모아놓고 기예(技藝)에 관해 논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이렇다한 기예에 관한 소양이 없어 묵묵히 앉아 있곤 하였다. 무제가 재주를 보여줄 것을 거듭 재촉하자 북을 연주하겠다고 하였다. 무제가 북을 가져다주자 박력있게 북치는 것을 시현해 좌중의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자신의 재주를 한껏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 무제 치세에 귀족들의 사치 경쟁이 치열했다. 무제의 외숙 왕개, 사위 왕제와 석숭의 사치 행각은 특히 유명했다. 당대의 거부 석숭은 명사들을 자신의 별장인 원림에 초청해 주연을 자주 베풀었다. 화장실에 가면 손님들이 모두 옷을 벗었다. 악취가 옷에 스며드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급적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거만스럽게 시녀들로부터 응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은 후일 엉뚱한 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다고 한다. 그의 부인은 무제의 딸 양성공주인데 궁중의 관습에 따라 화장실에 가면 냄새를 맡지 않도록 대추로 코를 막게 하였다. 그는 그런 대추를 남김없이 먹었다고 한다. 이처럼 거칠게 행동한 것은 황족인 사마씨에게 지지 않으려는 낭야 왕씨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석숭은 연회 때마다 아름다운 시녀에게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만약에 손님이 술을 다 마시지 못하면 그 손님을 시중 든 시녀의 목을 베었다. 어느날 왕도와 왕돈이 초대받았는데 왕도는 매번 억지로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왕돈은 술잔 비우기를 세 번이나 계속 거부했다. 시녀 세명의 목이 잘렸음은 물론이다. 왕도가 이를 힐난하자 "저 사람이 자기 집 사람 죽이겠다는데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대답했다. 그의 당찬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로 세설신어(世說新語)에 기록되어 있다.

'왕과 말이 천하를 공유한다'는 말처럼 강남으로 남하한 사마씨와 왕씨가 동진 정권을 지탱했다. 노련한 정치가인 왕도가 내각을 통할했고 왕돈이 군정대권을 장악했다. 그는 정남대장군과 형주목에 올라 병권을 좌지우지했다. 사실상 강주, 양주, 형주, 상주, 교주, 장주 등 6주의 군대를 휘하에 두었다. 원제는 왕씨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인 유외와 조협 등을 중용했다. 왕도는 대세에 순응해 사마씨와의 갈등을 피하려 하였지만 그는 "강을 먼저 건넌 다음 다리를 부스는 격"이라며 앙앙불락했다. 원제는 대연을 정서장군에 유외를 진북장군에 임명해 양쯔강 상류 지역을 장악한 그를 견제했다.

그는 쿠데타를 결심하고 명분을 찾았다. 참모인 사곤에게 "유외는 간악한 자다.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어 이자를 제거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데 너의 생각이 어떠냐"고 하문했다. 사곤은 "유외는 화를 불러온 사람이지만 성곽에 사는 여우나 묘에 사는 쥐와 같다"고 답했다. 그들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제왕 곁에서 간신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성호사서(城狐社鼠)라는 고사는 여기서 유래했다.

322년 무창에서 난을 일으켰다. 동진의 수도인 건강을 공격해 주의, 대연 등 중신을 살해했다. 승상이 되었고 무창에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조정을 멀리서 좌지우지했다. 323년 원제는 근심스럽고 분해 병이 나서 죽었다. 왕도가 유지를 받들었다. 태자가 즉위하니 명제다. 324년 그가 병이 들자 조정은 토벌군을 보냈다. 조정과의 싸움에 패한 왕돈은 "가문이 패했으니 세상일이 끝났다. 내 마땅히 억지로라도 가서 형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쟁터로 나가려 하였으나 기력이 떨어져 병상에서 죽고 말았다. 사후에 동진 조정은 그의 시신을 부관참시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경 매 골 프 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 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매 매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매 매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경매
장례식장 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접 / 주차장 완비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접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접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